



우즈베키스탄

미군기지 철수 요구의 배경과 전망

안디잔 사태로 인해 키르기스로 피신했던 우즈벡 난민 439명이 유엔과 미국의 노력으로 지난 7월 29일 루마니아로 망명·이송되자, 우즈벡 정부는 미국 측에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배후 보급기지로 2001년 설립된 카르쉬-하나바드 공군기지(K2)에서 모든 미군 항공기와 요원 및 장비를 180일 이내에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미국은 이슬람 카리모프 정권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경제원조 중단까지 검토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안디잔 사태 이후 몇 달간 지속되었던 양국의 불편한 관계가 미군기지 철수 요구로 정점에 달해 이전까지 친서방,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지향했던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유지를 위한 포석

우즈벡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러시아 중심의 외교노선에서 친서방 노선으로 돌아섰다. GUUAM¹⁾에 가입하고 표기문자를 종래에 사용해 오던 러시아와 동일한 키릴문자 대신 영미 문자인 로마자를 채택했으며, 9·11테러 이후에는 미군의 주둔까지 허용했다.

미국도 공군기지를 제공한 우즈베키스탄과 각별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 직후 대우즈벡 원조를 2001년 8,500만 달러에서 2002년 3억 달러로 크게 늘렸다. 카리모프 정권이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면서 미 국무부는 2003년부터 원조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으나 미 국방부의 원조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원조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테러와의 전쟁' 뿐만 아니라 카스피 해 주변에서 나오는 석유의 안정적 확보에 관심이

1)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이 CIS에서의 러시아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반대하며 조직한 단체

많았던 미국 정부는 카리모프 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왔다. 안디잔 사태에 관해서도 미국 정부는 국내외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우즈벡 정부에 유엔 진상조사단 파견을 수용하고 난민의 루마니아 망명을 허용하라고 촉구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러한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15년째 철권통치를 계속하고 있는 카리모프 정권이 CIS 지역의 연이은 시민혁명에 불안해 하며 자국내 통제를 강화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방의 간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안디잔 사태를 계기로 우즈벡 정부는 CIS 지역에서 번지고 있는 민주화 움직임의 배후에 미국 등이 있다고 비난하며 GUUAM에서 탈퇴하고 '미군철수 요구'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러·중과의 관계 강화할 듯

우즈베키스탄의 미군철수 요구는 이 지역 패권을 놓고 벌여온 외교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해석된다.²⁾ 실제로 우즈벡 정부의 철수 요구에 앞서 7월 5일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SCO)³⁾의 6개국 정상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이 종료 단계에 접어든 만큼 중앙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군의 최종 철수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리모프 정권이 급속히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현 정권 유지에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등 서방이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여 왔다.

안디잔 사태 직후인 6월 카리모프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전격 방문하여 러시아와의 관계 재건에 나섰으며, 양측은 구소련 해체 이후 최초의 합동 군사훈련을 계획 중이다. 러시아는 카리모프의 기대에 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영국이 주장한 유엔 인권위원회 진상조사단 파견 안전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중국 정부도 안디잔 사태와 관련하여 우즈벡 정부가 테러리스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카리모프 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해 왔다.

러·중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될 전망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는 에너지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국영 석유업체인 중국 석유천연가스(CNPC)는 카자흐스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회사인 페트로카자흐스탄을 41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미국도 카자흐스탄 서부 유전지대에 8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러시아는 기존의 에너지 확보망을

2) 영국의 더타임즈는 그동안 석유, 천연가스가 풍부한 카스피 해 인접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인 '로비'를 벌여 왔으며, 우즈벡 정부의 미군철수 요구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승리했음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음.

3)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2001년 6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설립한 지역협력체.

재정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6조 2,500억 m³(세계 10위)이며, 이 중 1조 6,200억 m³의 가스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우즈베키스탄은 600억 m³의 가스를 생산해 CIS 지역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가스를 많이 생산하였다.⁴⁾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에 658만 톤 규모의 원유와 컨덴세이트를 생산하여 일일 석유생산량도 13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현재 6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석유 매장량은 유전 탐사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은 석유·가스 매장량이 풍부하나 파이프라인 시설이 부족하여 수출 비중이 높지 못하고 에너지 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의 변화로 미국과 다른 서방기업들의 사업 기회가 다소 줄어드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전에도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의 복잡한 사업 환경과 에너지 운송 문제 때문에 우즈베크 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는 않았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카리모프 정권과의 관계 강화를 계기로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구조의 유사성을 이용, 우즈베크 에너지 사업에 참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여 CIS 지역의 에너지 수출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은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인 Gazprom이 서유럽에 판매하는 가격의 1/3 수준이다. 러시아의 우즈베크산 천연가스 수입은 2003년 12.7억 m³에서 2004년 70억 m³로 크게 늘었다. 러시아가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르크메니스탄산 천연가스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에 공급되고 있어 가스 부문에 있어 양국간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러시아의 석유·가스회사인 Lukoil은 10억 달러 규모의 35년간 생산물분배계약(PSA)에 따라 우즈베크 중부의 칸둠-하우카샤디 가스전 개발을 위해 4,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Gazprom도 4,000억 m³ 이상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우스트 유르트 지역 가스전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중국의 국영 석유업체인 중국석유천연가스(CNPC)도 우즈베크 국영 석유가스 회사인 Uzbekneftegaz와 6억 달러 규모의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양측이 50:50 비율로 부하라 및 히바 지역 주변 23개 유전에 투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카프카즈 중심으로 미·러 세력다툼은 과열될 전망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군사적 목적과 카스피 해 석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략적

4) 투르크메니스탄은 우즈베키스탄보다 더 많은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4년 가스 생산량은 580억 m³에 그침.

목적은 위해 카스피 해 인근 지역인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 등에 미군을 주둔시켜 왔다. 그러나 양국 모두 미군기지 철수를 요구⁵⁾함에 따라, 미 정부는 제3국에 미군기지 설치를 검토하여 아제르바이잔 유전지대인 바쿠에 해군기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바쿠는 하루에 100만 배럴까지 미국과 서유럽에 공급할 수 있는 BTC 송유관⁶⁾의 시발점이다. 미국은 친서방 성향의 그루지야 정부와 그루지야에 군사기지 설치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미국이 바쿠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게 되면 BTC 송유관이 지나가는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터키에 모두 미군기지가 설치되게 된다.

반면, 러시아는 2008년까지 그루지야 주둔 러시아군 철수에 합의하였다. 점차 확대되는 미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는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CIS 내의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가 안디잔 사태와 관련하여 카리모프 정권을 적극 옹호한 것도 우즈베키스탄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다. 이밖에도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타지키스탄에 주둔 중이던 201기계화 보병사단을 확대 개편, 새로운 군사기지를 창설하였으며, 카프카즈 지역의 미군 세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루지야에서 철수하는 자국군을 인접 아르메니아로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실리를 얻는 쪽으로 해결될 가능성 높아

미국은 군사기지를 유지하는 대가로 키르기즈에 추가적인 경제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상하이협력기구의 미군기지 철수 요구를 주도했던 타지키스탄에 대해서도 대규모 경제지원을 검토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도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안디잔 유혈사태 이후 중단됐던 금융지원 재개 문제가 양국 지도자들 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암시한 바 있어, 아직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리모프 정권의 미군기지 철수 요구는 무엇보다도 정권 강화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키르기즈의 아카예프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를 통해 퇴임 위기에 처했을 때도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아카예프 대통령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중국 정부 또한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러시아나 중국 모두 카리모프 정권이 극단적 상황에 몰릴 경우 군사적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개입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카리모프 정권의 열악한 인권상황 등에 대해 비난을 자제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미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카리모프 대통령은 정권 유지를 위해 러·중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경

5) 키르기즈는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원조를 약속받고 철수 요구를 철회함.

6) 아제르바이잔 바쿠-그루지야 트빌리시-터키 세이한을 연결하는 BTC 송유관은 직경 1m 남짓, 총길이 1,770km로 카스피해와 지중해를 잇는 세계 최장의 송유관임. 총 40억 달러 규모의 송유관 건설은 미국의 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일 운송능력은 100만 배럴에 불과하지만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는 카스피해 원유 수송이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됨

제적 지원도 유지하려는 양면전략을 펼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또한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즈벡 미군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빚어진 미국과 우즈

베키스탄의 관계악화는 양측이 실리를 추구하고 서로간의 이해를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미군기지 철수가 현실화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 재 형】